



대구시의회는 21일 오전 공평네거리에서 IAAF 현지 실사단 방문을 대비, 환경분위기 조성을 위해 거리 홍보전을 전개했다.

## 세계육상선수권 유치 열망 뜨겁다

### 거리홍보전 개최... 해외자매도시들도 동참

“IAAF 실사단 마음을 사로잡아라.”

대구시가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 열망으로 점점 고조되고 있다.

대구시는 22일 실사단 방문이 대회유치 결정에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모든 역량을 쏟는다.

특히 IAAF 실사단 방문기간 동안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져 대구 전체가 들쭉날쭉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의회도 팔을 걷었다. 시의회는 21일 오전 공평네거리에서 대대적인 대회유치 홍보전을 벌였다. 또 이날 새마을운동 대구시중구지회 회원 200여명이 동참해 거리홍보행사를 빛냈다.

이미 범 시민차원의 환영분위기는 후끈 달아올랐다. 대구시 주요 가로에는 500여개가 넘는 환영 현수막이 나부끼고, 실사단 숙소인 인터블고 호텔 야간 이동로에는 ‘DAEGU 2011’이 문양된 청사초롱 460여개가 불을 밝힌다. 또 실사단이 움직이는 거리 곳곳에는 7천여개의 플래카드도 설치됐다.

한편 대구시의 해외자매도시들도 대회 유치를 적극 응원하고 있다. 일본 히로시마시를 비롯해 삿포로, 하마마츠시, 중국 닝보, 양저우시는 20일 김범일 시장 앞으로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를 응원하고, 대회 개최시 시민홍보는 물론 관람단을 파견기로 약속했다.

/장영훈기자